

# 국내 최대규모 목탑 보탑사 이달말 완공

## 높이 108척... "21세기 한국문화재 탄생"

오는 2월말 완공을 앞둔 충북 진천 보탑사가 공사착공 3년 여만에 마침내 그 장엄함을 드러냈다. 통일신라시대 황룡사 9층목탑의 건축양식을 이어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대탑'으로 이름지어진 보탑사는 연건평 1백52평, 상륜부까지 높이 1백8척(32.7m)으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목탑으로 기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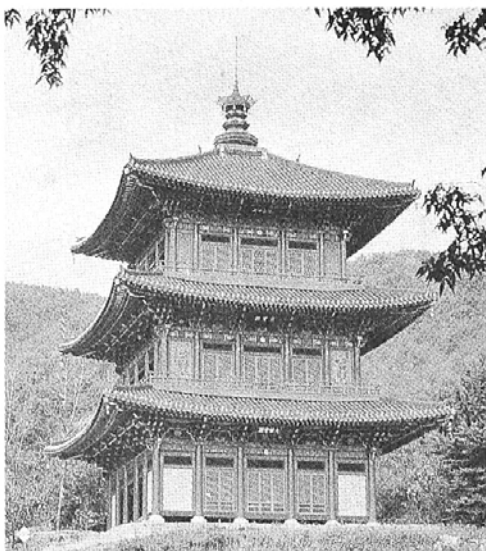
선선교인회 주지 지광스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주는 불교문화재를 다시 꽃피우고,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21세기의 한국문화재를 만들어 보여주고 싶었다"며 보탑사 불사배경을 설명했다. 보탑사는 착공 당시부터 많은 화제를 낳았고, 그만큼 기대도 컸다. '21세기의 문화재'를 세우겠다는 발원이 있었고, 신장훈(목수한옥연구소장), 단청장 한석성용, 대목장 조희완 등 한옥건축에 남다른 열정을 지닌 최고의 장인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3년여 동안 중국과 일본 인도의 유적 답사와 고증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을 통해 <탑과 사방불> <단청> 등의 보고서를 남기기도 했다.

터울 고르는 기초공사부터 지름까지와는 달랐다. 돌과 모래를 넣고 수차례 물을 부어 모래가 돌사이에 채워지도록 하는 입사기공법을 사용했다. 또 철재와 못을 일체 사용

하지 않고 짜맞추는 결구기법으로 지어졌다. 건축·설계를 배우는 학생들의 견학장이 되기도 했다. 단청도 특이하다. 조밀함을 피해 시원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고구려 이래의 여러 무늬들을 자유스럽게 채택, 구사한 명품'이란 평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특히 보탑사는 삼국시대 이래 맥이 끊긴 불전형 사방불신앙을 재현하고 있어 관심을 더해준다. 탑전 내부에는 1층에 비로자나불 석가여래불 아미타여래불 약사여래불을, 3층에는 미륵불을 모셨다. 2층은 법보전이다.

정성운 기자



◇국내 최대 목탑사원 진천 보탑사가 3년여만에 위용을 드러냈다.

## btn 안테나 재조정 서비스

### 무궁화위성 수신따라 3월5일까지

불교TV가 그동안 방송망 설치 조건이 어려운 산중사찰 등지에 설치 서비스해왔던 위성방송시스템이 무궁화위성의 정상수신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수신 안테나의 방위각 및仰각을 조정해야만 정상수신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불교TV에서는 그간 사용해 온 인텔넷의 방위각을 보완하고, 안테나를 위한 서비스를 오는 무궁화위성의 작동개시일인 27일부터

시작, 오는 3월 5일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그간 위성방송 수신 시스템 수신불량에 대한 일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작업을 맡은 대용시스템의 박광호 과장은 "이미 위성방송수신시스템을 갖춘 2백여 각 사찰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다만 설치기간이나 지형적 조건에 따라 약간의 사설비 추가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 의환비자카드 발급

### 불교TV 기준 완화

불교TV가 의환비자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발급중인 bm 의환비자카드 발급 허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스님들에게도 카드가 발급된다.

스님의 경우 승탑 5년 이상의 경우가 해당되며 또한 각

종단의 총무직원과 불교TV주식 1백주이상 소지자, 불교관련 언론종사자들에게 카드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bm의환비자카드의 이용액의 0.1%는 영상포교를 위한 공익금으로 사용되며 불교TV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영상물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 CD로 떠나는 실�크로드 나들이

### 불교사·사상 상세히 소개... 한국어판 제작

한창의 CD롬으로 실�크로드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됐다. 수천장의 사진과 생생한 현장음으로 떠나는 실�크로드 여행은 우리말로 자세히 안내된다.

한국 후지쯔와 SKC 중앙아미시스가 극대관으로 제작 시판하고 있는 CD롬 '실�크로드'는 폴란드의 한 작가가 실�크로드를 직접 여행하면서 찍은 수천장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실�크로드 공부에 도움을 주고 있어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로 각광받고 있다. 케이티시스템(704-5977)이 총판을 맡아 보급하고 있다. 1개당 4만9천5백원.



이 CD롬은 크게 7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종교여행 민족여행 역사여행 모험여행 언어여행 돈황학을 카라만 등으로 나뉘는 큰 주제 속에 각각의 작은 타이틀에 따라 실�크로드 문화의 진수를 알려 준다. 특히 종교여행 속에서는 이 지역의 불교사와 불교사상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실�크로드 전체의 다양한 불교종파들도 소개되고 있어 상좌부 불교에서 대승 티벳불교 선종 정토종 법화종 천태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각 주제를 여행하면서 중간중간 만나는 퀴즈와 게임들은

작년 9월 의국원관리법 위법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승려 정승우(일명)가 서울지법 지적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회 구성원의 조정 등을 들고 있다.

MBC PD수첩의 고발 문제는 차지해 '소적새' 또다시 혼란 위기

이사로 영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사회의 성원조건(이사 3/2)과 안건통과조건(이사 과반수)을 열두해 둔 것으로 승가원 운영에 대해 직접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말부

터 정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중앙승가대화에 대한 거부취하소송 제기 의사를 밝혀오고 있어 정씨의 승은 의도를 더욱 명명백백하게 보여준다.

소적새마을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인가를 받고, 장애인 복지센터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승가원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명예회복이라는 미명의로 소적새마을을 혼란속으로 빠뜨리려는 정씨의 망발은 분명 명징하다. 마땅하며, 불자들이 경악스럽게 한다.

의 이사는 원장 보각스님(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비롯한 모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의 조정 등을 들고 있다.

정씨는 승소할 당시 "명예회복을 위해 향후 어떤 일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사를 조카 박도택씨를 통해 밝혔다. 이에따라 안정화 추세의 있던 소적새마을에 또 다시 파란이 예상돼 불자들이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씨측은 명예회복을 위한 현재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속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보급 안내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 주위에 오래기간 병을 앓고자 병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래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속뜸을 먼저 써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속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속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속뜸을 임선하여 속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속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속뜸기등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속뜸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 2)한약제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속뜸 평반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도화나의 발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써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속뜸보다 절명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 3)속뜸은 속을 태우며 생기는 속역기스의 성분과 열 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속뜸에서는 속역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방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과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 바라밀 속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속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게양, 위암, 대장암, 간염,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자궁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년기형에,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근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비염,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기를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속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속뜸건강요법

**속뜸기 내용**

- 1)바라밀 속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세트화(강화약속 약 2개월분 포함)
- 2)속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 3)속뜸기 핸드트로 전가속이 사용
- 4)노부모양의 효도 선물로는 제 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속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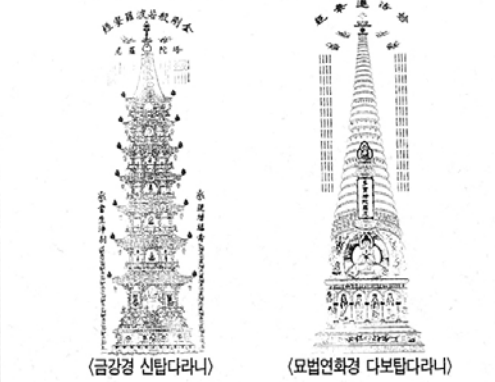
**구입문의 및 상담 불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회
  - 전화: (051)864-3740
- 서울-경기: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 전화: (0335)34-9490, 39-1906
  - 야간: (0342)706-3060

"어려운 역경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 "스님께만 알려드리는 획기적인 정보!"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祕의 佛塔다라니"



◎고급백색공단천위에 100% 순수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크기): (가로)62cm x (세로)160cm

■상담문의: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동 5층) 전화: (051)864-3740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자제에서 실제로 強力(강력)한 氣(기)가 방출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영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만 보내드려 큰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순서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바로 알려주시시오)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방법은 신도개인의 현재의 운을 그자리에서 직접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고,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영가의 병의 상태, 관념과정의 방해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며, 나쁜운이 좋아지게 변화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으며, 영가의 병의 관념 과정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운명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으며, 전혀 운명을 판단해 줄 수 없는 사람도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되어, 이번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있는 신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을 지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스님들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쳐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진명=세해를 맞이 하시는 소감을 들려 주십시오

법정=달려야 할 것이 열두 달이다. 1년이다 나누어 놓으니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세월은 항상 그대로일지. 다만 우리의 마음, 사물이 욕심이 변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불자라면 덧없는 세월을 한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덧없이 무가치하게 살고 있는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저는 살아 보면 늘 한때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유용하게 보냈는가 생각합니다.

진명=수행뿐만 아니라 봉사

는데 이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계율은 강요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생활의 규범이 되어 합니다. 투철한 출가정신을 지니고 하루하루 생활한다면 이것이 바로 계행이고 정진인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수시로 무엇 때문에 출가하였고, 어떤 것이 출가의 본분이고 삶의 태도인가를 생각한다면 2백50여 가지의 계율을 낱알이 되새기지 않는다해도 생활자체가 청정한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계행이 철저하려면 가난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모든 것이 풍부하면 계행

요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조직은 원치 않습니다. 일단 조직이 생기면 권위의식, 위엄, 군림하려는 지극히 세속적인 강한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즉 세속처럼 조직화, 명령을 분방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화합을 이끌어내야지 세속정치처럼 한다 면 이것을 수용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승단이 거듭나려면 세속적인 욕심을 벗고 순수한 종교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청정한 승가는 자연히 이

## 법정스님과의 만남 ①

### 주제: 맑고향기로운 수행

대담: 진명 <스님>



활동등을 비롯 시중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스님들이 많고 생각 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 명심해야 하는 청규는 무엇일까요?

이 해이해지기 심상입니다. 모 든 것이 풍부한 이런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중요한 물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맑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 가난속에서 보리

## "계율은 강요아닌 생활"

법정=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틀이 아니라 할 때 사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도 정진입니다. 정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든지 일함으로써 매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진인 것입니다. 또 이는 산중에 기도 정진하는 것 못지 않게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정진이지요. 그런데 자기형상을 위해서 이웃이 어떻게 됐는지 무시하고, 종교적인 기능, 사회적 역할을 도외시키고 형식적으로 자기완성을 위해서만 노력한다고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사회활동은 선방에서 기도 정진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런 정진으로 사회활동을 한다면 인파로써 덕이 될 것입니다.

투철한 출가정신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바로 계행이고 정진

법정=계율은 청정한 생활규범입니다. 요즈음 일부 수행자들이 보면 계율을 소홀히 해서 일반 신도들에게 '승속이 다를 게 뭐냐' 하고 비관을 받고 있

심, 자비심이 우리나라의 것이 지, 때때로 이것 저것 가진 것이 많으면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물론 인연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향해야 합니다. 나 누어지지 않고 쌓여 있다면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가의 제1의 과제입니다. 이를 억제하지 못하면 속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법정=요즈음 출가자들이 계율정신에 있어 가난이 탄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학들 수행에 거울이 될 만한 계율정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법정=자기는 수행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행자들이 현대사회에 활판 기여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설픈 현대화 물결에 편승해서 마치 속도 속도 아닌양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종교는 감화입니다. 인격이 풍기고 있는 수행자의 덕에 의해서 교화되는 것이 세상일로 교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의술수로 파고드는 수행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법정=승가는 청정(화합)이 생명입니다. 교단의 조직이 필

수행자가 필요하지요.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법정=자기 자신답게 간절하게 생활한다면 이웃에게 함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닮았다고 하니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법정=승가는 청정(화합)이 생명입니다. 교단의 조직이 필